

해체가정과 일반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 차이

A Comparison Between Mothers' Stress from Child Rearing and Parental Role according to the Type of Dysfunctional Family and Normal Family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박정옥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kyu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Park Joung-OK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recent type of dysfunctional family is caused not only by the loss of a family member, which is the traditional type of dysfunction, but also by the absence of a functional aspect. In order for a family to function healthi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right child rearing by the parents and the right parental role.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stress from child rearing and the parental role in dysfunctional families, which have been increasing enormously in recent times.

With this aim, 45 persons from dysfunctional families owing to divorce, 51 persons from other dysfunctional families, and 48 persons from general families were subject to a test about stress from child rearing and the parental role. As a result, for stress from child rearing, mothers in dysfunctional families perceived stress from child rearing more highly than ones in general families; and also for parental role, the level of parental role was proven lower for mothers in dysfunctional families than ones in general families.

주제어(Key Words): 해체가정(dysfunctional families), 양육스트레스(Stress from Child Rearing), 부모역할 (Parental Rol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가족 내 관계의 변화와 기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가족관계의 변화와 결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변화는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해체는 이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최근 가족해체의 유형은 전통적인 형태인 가족구성원의 상실만이 아니라 가족기능의 상실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이혼이나 별거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사망 등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전통적인 가족해체와 함께 경제적 상실, 가족구성원 역할관계의 변화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가족해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강병재, 2003). 결과적으로 가족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체가족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증가율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03년을 기점으로 하향하고 있다. 즉, 1995년에는 천명당 이혼율인 조이혼율이 1.5명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천명당 2.5명 그리고 2003년 3.5명으로 증가한 다음 2005년에는 2.6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재혼의 경우 1990년 전체 혼인 대비 10.7%이었으나, 2000년에는 17.9%, 그리고 2003년에는 22.2%로 증가하였다. 특히, 재혼인 경우 부모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1990년 89.3%에서 2000년 81.7% 그리고 2003년에는 77.3%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부일방이 재혼이거나 부모모두 재혼인 경우는 1990년 10.7%에서 2000년 17.9% 그리고 2003년에는 22.2%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박세경, 2004b).

중요한 문제는 조이혼율은 2003년 정점 이후 2005년 2.6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혼자 대비 재혼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 이후 꾸준히 재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혼자의 비율이 이혼자 대비 50% 미만인 것이다. 즉, 2005년 이혼자 총수는 128,468쌍이었지만 재혼은 59,772쌍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06). 이혼 대비 재혼의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많은 이혼자가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체가족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2005년 이혼 자료에 의하면, 총 128,468건의 이혼 중에서 자녀가 1명인 경우는 35,033건, 2명인 경우는 40,296건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도 6,037건이었다(통계청, 2006). 따라서 2005년도 이혼자 중에서 63.34%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족해체는 필연적으로 빈곤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빈곤에 의한 가족해체는 가족의 생존과 함께 자녀 양육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된다. 빈곤에 의한 문제는 이들이 한계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작은 자연적, 사회적 위협에도 쉽게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이병열, 1999). 가족해체가 나타내는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정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빈곤의 문제이다. 빈곤은 단순한 물질적 불충분 상태가 아니라 가족역동성 측면에서 복잡한 가족문제를 야기한다. 낮은 가구소득으로 인한 생활고와 이에 따른 병폐 그리고 아동의 경우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교육여건으로 교육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가 차단되면서 빈곤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박세경,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한 가지는 자녀 양육문제이다. 한부모가정에서는 편부 또는 편모에 관계없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녀에 대한 학업지도가 심각하다(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2001).

건강한 가족기능의 수행은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종류의 변화를 경험했느냐 하는 것보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가족이 응집·협력하여 원만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 적응해 나가는가 하는 가족기능의 수행과정의 중요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박세경, 2004a). 이것은 가족기능이 가족의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가족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된다면 가족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체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하여 가족의 기능이 매우 낮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경제적인 부양능력과 정서적 기능 그리고 가족의 여가 및 휴식 기능 전반에 걸쳐 해체가정이 정상가정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제적인 부양기능은 일반가정이 63.6점, 해체가정은 48.37점, 정서적 부양기능은 일반가정이 74.9점, 해체가정이 61.9점, 신체적 부양기능은 일반가정이 76.0점, 해체가정이 65.8점,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은 일반가정이 61.6점, 해체가정이 50.3점, 그리고 여가 및 휴식기능은 일반가정이 46.3점, 해체가정이 26.0점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해체가정의 가족기능의 수행이 일반가정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2001) 즉, 가족의 행복은 가족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해체가족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건 가족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해체가정의 경제적인 측면은 가족기능이 정상적으로 작

동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것은 해체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이 정상적인 가계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체가족 가구주의 해체당시 평균 소득은 85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해체가정 중에서 편모가정은 68만원, 1인 단독 가구 74만원 그리고 기타해체가족은 58만원으로서 해체가족의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김승권, 2001). 특히 편모가족은 편부가족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었으며,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의 비율이 편부가족인 경우 31.6%이었으나 편모가족은 75.0%로서 편모가족 여성의 빈곤의 심각성을 반영해주고 있다(조광영, 2004). 즉, 이혼으로 인한 여성한부모가족은 실제로 대부분이 한부모가 되면서 남성에 비해 수입이 감소하며 빈곤으로의 유입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계층과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수준이 하락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조혜련, 2003).

가족의 해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를 내포하게 된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의미의 문제를 내포하게 되며, 두 번째는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강병재, 2003).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는 여성가구주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데, 전문직과 일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제외하고 많은 여성가구주는 이혼과 함께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된다(강병재, 2003; 박민형, 2006; 조성연, 2003). 특히 이혼 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소 6%에서 최대 70% 정도의 소득수준의 감소가 나타난다(김연옥, 유채영, 이인정, 최해경, 2005 재인용).

부모의 심한 갈등상태나 폭력이 빈번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이혼은 아동에게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Price & McKenry, 1998). 그렇지만 부모의 이혼은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로 인한 고통이 아동의 이혼 후 심리·정서적 적응을 방해하고 이혼 후 주 양육자의 심리적 불안상태가 자녀에게 전달되거나 불안정한 양육태도를 보이면서 더욱 심화된다(한경혜, 이정화, 2002). 즉,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이혼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혼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체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두 번째는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의 문제이다. 특히 여성 한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다음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이다(박민형,

2006). 특히 해체가정은 이의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활동이 구분되어 있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와 양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가사의 고유한 영역을 분담하게 되지만 해체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부모역할의 만족감을 반영하는 개념이다(임규혁, 1996). 부모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부모역할을 즐기고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만족감은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문혁준, 2001).

부모역할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역할 모든 요인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격려, 증진, 융통성, 거부, 통제 요인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수향, 2006).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경, 2006).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이 자녀의 사회적 발달 및 자기 자신의 조절능력의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모역할은 부모가 되어 실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특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현은강, 1994). 따라서 부모역할은 부모로서 갖게 되는 지식, 태도, 기술 등으로 나타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역할이란,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06).

부모의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유아의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특히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의 지각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욱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nic & Low, 2002). 그리고 자녀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느끼고 자녀들에 대하여 더욱 강압적인 훈육을 많이 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신체적인 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gental, Olster, & Martorell, 2002). 이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해체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증가이다. 선행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과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있어서 해체 가족의 두 번째 문제점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는 중요한 가족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부모 역할의 약화나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약화시킴으로써 가족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 가족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을 밝혀봄으로써 해체 가족의 가족기능의 약화정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해체가족을 전통적인 해체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능적인 해체로 구분하고 이를 정상가정과 비교함으로써 해체 가족의 문제점을 보다 충실히 밝혀보고자 한다.

해체가족의 가족기능의 약화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해체가족의 가족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해체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하여 밝혀보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 그리고 일반가정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 그리고 일반가정의 어머니의 부모역할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의 해석에서의 정확성을 가지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선정과 검사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검사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은 조사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적인 분포를 서울지역에서만 표집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서 지역적인 특성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이혼해체가정은 반드시 이혼에 의하여 가족이 해체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능해체가정은 부부관계는 유지하되 경제적인 이유에 의하여 남편의 경제적 기능이 한정된 가정을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해체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혼에 의한 해체가족과 경제적 문제에 의한 해체가족 그리고 정상가족 등 3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집단별로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혼해체가정은 부부가 합의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한 가정이며, 어머니가 자녀와 가사를 돌보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그리고 기능해체가정은 경제적인 사유에 의하여 가정의 일부 기능이 정지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며 어머니에 의하여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일반가정은 자료수집일 현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그리고 연구대상 가정은 연구기간 동안 만3세에서 만5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모두 대졸이상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한정된 것은 학력의

〈표 1〉 연구대상

구분	사례수	년령(SD)	최대	최소
이혼해체가정	45	36.31(2.47)	31	41
기능해체가정	51	37.04(1.99)	32	42
일반가정	48	36.17(2.18)	31	40
전체	144	36.52(2.23)	31	42

차이에서 오는 외생변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2.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검사도구는 Abidin(1990)이 개발한 부모스트레스검사지(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 PSI/SF)로 전혜인(2006)이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검사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혜인(2006)은 이를 장애아동용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지로 번안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혼부모용으로 재수정하였다. 따라서 원문에 있는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부부관계)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원 검사지에서는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범위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번안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onbach's $\alpha=.88$ 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전혜인(2006)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별로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고, 3개 영역 36개 문항의 신뢰도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alpha=.92$,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alpha=.89$ 까지로 높은 수준이었다. 양육스트레스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별 문항수 및 문항내용 그리고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2. 부모역할지능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역할 검사도구는 현미숙(2004)이 제작한 부모용 부모지능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부모들이 대처하는 행동이나 생각하고 있는 바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피검사자가 자기 스스로 보고하는 자기보고

식 검사로서, 3개 범주 8개 하위 영역에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매우 그렇다' 또는 '항상 그렇다'에 5점, 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다' 또는 '항상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로 제작되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현미숙, 2004)는 Conbach's $\alpha=.60$ 에서부터 .84까지의 분포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해체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하여 밝혀보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과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가정 어머니의 검사에서는 서울시 내 모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문화교육과정에 연수중인 여성들 중에서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 대학졸업자 이상인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서 개인적인 신상은 연령, 학력과 자녀의 유무 및 자녀의 성별과 연령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 어머니들은 개인적인 절차를 거쳐서 접촉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연구의 의도를

<표 3> 부모역할지능검사 하위 영역 및 문항수

구분	하위영역	문항수	Conbach's α
발달 자극	공감	6	.73
	격려	6	.84
	증진	6	.73
	합리적 권위	6	.70
양육	융통성	3	.60
	거부	6	.81
	수용	3	.63
관리	통제	8	.62

<표 2> 양육스트레스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별 문항수 및 문항내용

구분	문항번호	문항내용	Conbach's α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12	양육자의 성격특성 및 역할 역기능적인 부모 역할 수행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	.92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12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강화작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수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	.89
자녀의 특성	12	자녀의 적응, 요구, 기분, 활동에 대한 특성 부모가 다루기 힘든 자녀의 행동상의 문제	.90

설명하고 이에 응하는 어머니들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검사기간이 총 6개월이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해체가정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하여 밝혀보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 그리고 일반가정으로 구분하고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를 밝혀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검증을 위한 최소 유의도 수준은 $\alpha=.05$ 수준이었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해체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의 차이를 밝혀보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체가정의 유형에 따라 일반가정과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체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해체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하여 밝혀보는 것으로서, 양육스트레스 각 하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유형별에 따른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F=11.535(df=2,141)$, $p<.001$). 전체 평균은 3.32($SD=.56$)로 중앙값인 3.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느끼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에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유형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F=6.896(df=2,141)$, $p<.001$). 전체 평균은 3.32($SD=.54$)로 중앙값인 3.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느끼고 있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정유형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분석

구 분	N	M	SD	F	Scheffe
이혼해체가정(a)	45	3.47	.52	11.535***	a,b>c
기능해체가정(b)	51	3.46	.53		
일반가정 (c)	48	3.02	.52		
전 체	144	3.32	.56		

*** $p<.001$

<표 5> 가정유형에 따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분석

구 분	N	M	SD	F	Scheffe
이혼해체가정(a)	45	3.44	.49	6.896***	a,b>c
기능해체가정(b)	51	3.43	.41		
일반가정 (c)	48	3.09	.64		
전 체	144	3.32	.54		

*** $p<.001$

3) 자녀의 특성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에서 자녀의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유형별에 따른 자녀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F=21.344(df=2,141), p<.001$). 전체 평균은 3.14($SD=.61$)로 중앙값인 3.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녀의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의 자녀의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가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느끼고 있는 자녀의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체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부모역할 차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문제는 해체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부모역할의 차이에 대하여 밝혀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 하위 영역별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부모 역할 중 발달자극의 차이

부모 역할 하위 영역 중 발달자극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발달자극의 하위 요소 중 공감에서는 가정유형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10.565(df=2,141), p<.001$). 즉, 일반가정 어머니의 공감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달자극 하위 요소 중에서 격려에는 가정유형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자극의 하위 요소 중에서 증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정유형에 따른 자녀의 특성 분석

구분	N	M	SD	F	Scheffe
이혼해체가정(a)	45	3.34	.61	21.344***	b,a>c
기능해체가정(b)	51	3.35	.53		
일반가정 (c)	48	2.72	.56		
전체	144	3.14	.61		

*** $p<.001$

<표 7>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 역할 중 발달자극의 차이

구분	N	M	SD	F	Scheffe
공감	이혼해체가정(a)	45	2.76	10.565***	c>a,c
	기능해체가정(b)	51	2.73		
	일반가정 (c)	48	3.21		
	전체	144	2.90	.62	
격려	이혼해체가정(a)	45	3.11	.096	
	기능해체가정(b)	51	3.07		
	일반가정 (c)	48	3.11		
	전체	144	3.10	.51	
증진	이혼해체가정(a)	45	2.95	12.031***	c>b,a
	기능해체가정(b)	51	3.01		
	일반가정 (c)	48	3.41		
	전체	144	3.13	.54	
합리적 권위	이혼해체가정(a)	45	2.91	12.899***	c>b,a
	기능해체가정(b)	51	3.02		
	일반가정 (c)	48	3.41		
	전체	144	3.12	.55	

*** $p<.001$

〈표 8〉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 역할 중 양육의 차이

구분		N	M	SD	F	Scheffe
용통성	이혼해체가정(a)	45	2.86	.41	9.782***	c>b,a
	기능해체가정(b)	51	2.97	.46		
	일반가정 (c)	48	3.29	.57		
	전 체	144	3.04	.52		
거부	이혼해체가정(a)	45	3.19	.44	45.714***	b,a>c
	기능해체가정(b)	51	3.22	.52		
	일반가정 (c)	48	2.40	.46		
	전 체	144	2.94	.61		
수용	이혼해체가정(a)	45	2.41	.35	72.143***	c>b,a
	기능해체가정(b)	51	2.57	.53		
	일반가정 (c)	48	3.58	.62		
	전 체	144	2.86	.73		

***p<.001

〈표 9〉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역할 중 관리(통제)영역의 분석

구분	N	M	SD	F	Scheffe
이혼해체가정(a)	45	3.34	.56	24.106***	b,a>c
기능해체가정(b)	51	3.55	.60		
일반가정 (c)	48	2.70	.72		
전 체	144	3.20	.72		

***p<.001

(F=12.301(df=2,141), p<.001). 일반가정 어머니의 증진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해체가정의 증진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권위에서는 가정유형별로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899(df=2,141), p<.001). 일반가정 어머니의 합리적 권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발달 자극에 있어서 하위 요소 중 격려를 제외한 요소에서 일반가정 어머니의 점수가 해체가정 어머니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 역할 중 양육의 차이

부모 역할 하위 영역 중 양육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모 역할 중 양육의 하위 요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용통성은 가정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782(df=2,141), p<.001). 일반가정 어머니의 용통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에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부는

가정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45.714(df=2,141), p<.001). 즉 일반가정 어머니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해체가정 어머니의 거부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능해체가정과 이혼해체가정의 거부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에서는 가정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2.143(df=2,141), p<.001). 일반가정 어머니의 수용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해체가정 어머니의 수용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의 수용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의 하위 요소별 분석을 정리하면,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점수가 긍정적인 요소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요소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 역할 중 관리(통제)의 차이

부모 역할 하위 영역 중 관리(통제)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정유형에 따라 관리(통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관리(통제)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능해체가정 어머니의 관리(통제)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F=24.106(df=2,141)$, $p<.001$). 그리고 이혼해체가정과 기능해체가정의 관리(통제)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의 차이를 밝혀보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가족유형에 따라 일반가정과 기능해체가족과 이혼해체가족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가정은 해체유형에 관계없이 일반가정에 비하여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 모든 영역에서 일반가정에 비하여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체가정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방해하고 양육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불안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한경혜와 이정화(200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을 고려한다면 해체가정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지각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욱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Crnic & Low, 2002)과 자녀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느끼고 자녀들에 대하여 더욱 강압적인 훈육을 많이 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신체적인 벌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Bugental, Olster, & Martorell, 2002)에 의하면, 해체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해체가정은 해체유형에 관계없이 일반가정에 비하여 부모역할의 수준이 낮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역할 전 영역에서 일반가정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부모역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됨으로써 자녀들에게 충분한 역할모형의 기능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의 해체가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강병재(2003)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때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혁준(2001)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부모역할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높은 정적인 상관성이 있으며(박수향, 2006),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 간에도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김혜경, 2006).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체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하여 가족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기능의 비정상적인 수행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계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부모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해체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가족의 해체가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강병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해체는 이혼 여성의 대부분이 일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가족 해체이후 경제적인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고(강병재, 2003; 박민형, 2006), 여성의 경제적 감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하락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강병재, 2003; 김연옥 외 3인, 2005)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상의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가정의 양육스트레스 원인을 밝혀보는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가정의 양육스트레스만을 밝혀보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체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밝혀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체가정에서도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둘째, 해체가정 어머니의 부모역할이 낮은 원인을 밝혀보는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가정의 부모역할 수준이 일반가정에 비하여 낮다는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부모역할의 수준이 낮은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해체가정에서도 정상적인 부모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체가정이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해체가족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기는 하였지만 주로 자녀의 가족기능 적응에 대한 연구의 수행이 주를 이루고 있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해체가족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가족구성원 전체의 정상적인 심리적 및 정서적 기능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해체가정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책 수립을 위한 연구의 수행도 요구된다. 현재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의 수행은 미진한 실정이다. 해체가정이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족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해체가족이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법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다섯째, 해체가족의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가족의 해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체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병재(2003). 가족해체와 보육정책, 가족해체에 따른 영·유아 교육.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3년 추계전국학술대회자료집. 83-106.

김승권(2001). 최근 가족해체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옥, 유채영, 이인정, 최해경(2005). 가족복지론. 서울 : 나남출판사.

김혜경(2006).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혁준(2001).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통권 157, 11-23.

박민형(2006). 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세경(2004a).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91호, 69-84.

박세경(2004b). 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93호, 47-64.

박세경(2005).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103호, 73-88.

박수향(2006). 부모역할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병열(1999) 스웨덴·영국·미국의 빈곤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규혁(1996). 교육심리학. 서울 : 학지사.

전혜인(2006). 부모결연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광영(2004). 한국의 빈곤과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성연(2003). 여성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방법.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579-593.

조혜련(2003). 저소득 여성의 한부모 노릇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6). 인구동태. 통계청.

한경혜,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8), 59-84.

현미숙(2003). 아동 부모교육·상담을 위한 부모역할 지능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현은강(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2(1), 103-117.

Abidin, R. R.,(1990). *Parent Stress Index Short Form : Test Manual*.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Bugental, D. B., Olster, D. H., & Martorell, G. A.(2002). A developmental neuroscience perspective on the dynamics of parenting. In L. Kuczynski(Ed.), *Handbook of dynamics parent-child relations*, 25-48. London : SAGE Publication.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Crnic, K. A., & Low, D. H.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Vol 5, 243-268)*.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rice, S. J., & McKenry, P. C.(1998). *Divorce*. Thousand Oaks : Sage.

(2007년 5월 26일 접수, 2007년 7월 9일 채택)